兩宋時期의 小兒科學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1],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硏究所[2]
朴炫局[1, 2] *·金基郁[1, 2]·李泳錫[1, 2]

The Medical Study about the Development of Pediatrics for Song(宋) Dynasty

Park Hyun-kuk[1, 2] *·Kim Ki-wook[1, 2]·Yi, Yeong-seok[1, 2]
[1]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2]Dongguk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Song Dynasty(宋代) period gained the summit in the developmental phase of the history in pediatrics.

In 1076, Taeuiguk(太醫局) was founded and Sobangmaek(小方脈) was the one of nine branch in Taeuiguk (太醫局). As a result, educational agency and system was arranged in the field of pediatrics. At the same time, pediatrics have furnished with foundation to develop independent field in medical science. Especially, Byeonjeungnonchi(辨證論治) system is established in pediatrics science according to the compilation of『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by Jeoneul(錢乙). Children's doctors, Jeoneul(錢乙), Jinmunjung(陳文中) and Donggeup(董汲) arranged clinically theories, so they made that age the peak of the pediatrics.

Looking at the developmental part of theory in pediatrics of the Song Dynasty period, Jeoneul(錢乙), who was the representative children's doctor in Song Dynasty period, insisted that children had formed Ojang-yukbu(五臟六腑) in the physiological part but they were not perfect like adult's. Therefore they had to consider the poor part in children's body, and then they had to cure them. 'Byeonjeung(變蒸)' was considered to be normal physiological phenomenon. Also he insisted that Yukeum(六淫), 'Pung, Han, Seo, Seup, Jo, Hwa(風, 寒, 暑, 濕, 燥, 火)' and 'Gyeong, Pung, Gon, Cheon, Heo(驚、風、困、喘、虛)' are the main cause of the children's five vital organ's pathology.

Like this, his academic thought, which lay emphasized on children's spleen and stomach and Ojangbyeonjeung(五臟辨證) main principles, affected on doctors, Donggeup(董汲), Yeomhyochung(閻孝忠), Yubang(劉昉), Jang-wonso(張元素), Idong-won(李東垣), Manjeon(萬全).

Bangje(方劑) fields of pediatrics had developed so fast and『Taepyeongseonghyebang(太平聖惠方)』contained about 2689 kinds of children's prescription. According to this, there are so many kinds of medicinal shape, for example 'Hwan, San, Go, Dan(丸, 散, 膏, 丹)', which cured children's disease. Through this, we find that the shape of medicine about the children's diseases had developed to the more simple direction, taking account of the children's clinical trait.

Key Words : Taeuiguk(太醫局), A Medical practitioner(醫家), Jeoneul(錢乙),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Taepyeongsunghyebang(太平聖惠方)

www.kci.go.kr

Ⅰ. 序 論

5세기에 成書된 것으로 추정되는 『小品方』에서는 "무릇 사람의 나이가 6세 이상이면 小, 16세 이상이면 少, 30세 이상이면 壯, 50세 이상이면 老라고 한다. 6세 이하는 경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젖먹이 영아가 병들면 치료하기 어려운데 이는 모두 치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中古에는 무당들이 소아 『顱顖經』을 만들어 소아의 壽夭를 점치고 질병의 생사를 판단하였고, 대대로 이를 서로 전수하여 비로소 小兒方이 생기게 되었다"[1]고 하였다. 따라서 소아과는 1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삼으며 오늘날 14세를 상한으로 삼는 소아과 연령보다 조금 높았다.

소아는 신체적으로 臟腑肌肉이 연약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한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생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신생아에서 유아기에 이르는 동안 성인과 다른 소아만의 특징이 발현되고 유아기, 소아기, 사춘기를 거치면서 소아의 특성이 점차 감소되고 마침내 성인으로 이행하게 된다[2].

소아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및 예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아과학은 예로부터 중요한 醫學分科로써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秦漢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馬王堆醫書』의 「五十二病方」에는 巫卜과 아울러 소아의 急驚風, 慢驚風, 臍帶風 등에 관한 증상과 치료법이 나타나고, 『神農本草經』에서는 소아의 병명과 구체적인 치료약물이 등장하며, 扁鵲·華佗 등 초기 의가들에 관한 자료에는 望診·切診 등 소아질병에 대한 진단방법이 운용되기 시작하였고, 『黃帝內經』에서는 신체의 발달단계에 따른 소아의 생리·병리적 특징을 논하였으며[3], 이후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서는 辨證施治를 운용하여 소아질병에 대한 理·法·方·藥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內經』과 『金匱要略』을 중심으로 소아과 이론의 기초가 마련되어 宋代 이전까지 임상에 운용되었다. 특히 宋·金·元代를 거치면서 小兒科學의 실천적 이론이 확립되었고 明代에 들어서는 이러한 이론이 임상에서 활발히 운용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小兒科學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宋代에는 지금의 소아과에 해당하는 '小方脈'이 太醫局 산하 9개과 중의 하나로 설치됨으로써 소아과의 교육기구 및 교육체계가 정비되고 동시에 소아과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錢乙이 『小兒藥證直訣』을 편찬하여 소아과학의 辨證論治 체계가 확립되었고, 금원시기에는 金元四大家의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각종 소아질병에 대한 병인·병기 및 치료원칙이 형성되었으며[4], 明代에는 宋·金·元을 거쳐 발전된 의학이론을 임상과 연계시킴으로써 비교적 계통적이고 완비된 소아과학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論者는 兩宋시대의 소아과학의 발전 배경과 개황, 그리고 小兒痘疹과 醫家[5] 및 著書에 나타난 소아과 이론 등을 정리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소아과의 발전배경

* 교신저자 : 박현국,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54-770-2370,
E-mail : parkhg@dongguk.ac.kr
접수일(2008년 4월 16일), 수정일(2008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2008년 5월 16일)

1) 陳延之 著. 小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50. "凡人年六歲已上爲小, 十六已上爲少, 三十以上爲壯, 五十以上爲老, 其六歲以下經所不載, 所以乳下嬰兒有病難治者, 皆爲無所承據也. 中古有巫妨者, 立小兒 顱顖經 以占夭壽, 判疾病死生, 世相傳授, 始有小兒方焉."

2) 丁奎萬 編.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5. p.34.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上古天眞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

4) 朴炫局, 金基郁, 金正浩. 金元代의 小兒科學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pp.13-26.

5) 吳峻煥, 金基郁, 朴炫局. 錢乙의 醫學思想에 關한 硏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2). pp.109-152. "북송시기 錢乙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사학회지에 발표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www.kci.go.kr

北宋時期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었다. 당시 발명된 '화약, 지남침, 활자·인쇄술'은 宋代의 三大 발명품으로써 지남침의 발명은 항해술에 큰 영향을 주어 문화와 의학교류를 촉진시켰고, 활자 및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정보를 증대시켰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의학발전의 제고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宋 王朝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면서 文官을 기용하고 文士를 선발, 양성함으로써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 중 일부 文士가 의학에 참여함으로써 의학의 수준을 높였는데, 이는 '不爲良相, 當爲良醫'라는 당시의 사회적 풍조에 따른 것으로 '儒醫'란 명칭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6]. 이와 같이 醫學階層의 구조적 변화는 의약이론의 발전과 임상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학에 있어서도『傷寒論』이후 약 700~800년을 거쳐 오면서 여러 실천적인 지식, 즉 질병의 발생 규율, 치료, 처방 등에 관하여 풍부한 임상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思潮의 영향아래 의학계에서는 혁신적인 醫家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이론과 학파가 형성되었다[7].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醫事管理를 개선하고 '翰林醫官院'을 설립하는 한편 藥局을 개설하고 의학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校正醫書局을 설치하여 고대의학을 정리하였고『太平聖惠方』,『太平惠民和劑局方』,『經濟總錄』등의 대형 方書를 編著하는 등, 宋代 의학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고 소아과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2. 소아과의 발전개황

宋代에 이르러 소아과학은 제반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小兒藥證直訣』의 편찬으로 소아과학의 辨證論治 체계가 확립되었고, 錢乙, 陳文中, 董汲 등 小兒醫家의 임상 및 이론 정립으로 소아과학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兩宋시기 소아과에 관한 의서가 근 70여종 간행되었으며, 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량이 증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 소아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를 바탕으로 소아과의 학문적, 임상적 발전이 증대되었다.

이 시기 소아과의 주요특징은 錢乙의 五臟辨證說을 위주로 하는 소아과의 辨證論治體系의 정립과 소아과 유파의 興起 및 瘡疹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1) 소아과 의학제도의 정립과 慈幼局의 설립

宋代의 醫學敎育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太醫局은 醫政 직능뿐만 아니라 의학교육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太醫局 산하에 大方脈, 風科, 小方脈, 眼科, 瘡腫兼折瘍, 産科, 口齒兼咽喉科, 鍼灸科, 金鏃兼書禁科 등 9개 과로 나누어 의학교육이 실시하였는데 그 중 지금의 소아과에 해당하는 '小方脈'이 그 중의 하나로 설치됨으로써 소아과의 교육기구 및 교육체계가 정비되고 동시에 소아과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내용도 唐代에 비해 더욱 발전되어 小方脈의 교육과정은『素問』,『難經』,『諸病源候論』,『補注本草』,『千金方』이외에『脈經』,『傷寒論』이 추가되었다. 규정을 살펴보면 小方脈科는 교수 1명 외에 翰林醫官이나 上等醫生 혹은 외부에서 초빙된 저명한 의사가 교육을 담당하였고, 학생들에게 임상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소아과 교육과정의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宋代에는 보건 및 慈善政策이 중시되었다. 1249년에 '慈幼局'을 설립하여 遺棄된 幼兒나 嬰兒들을 거두어 보살펴 주었는데, 이는 단순한 慈善政策의 차원만이 아니라 소아과학의 실제적인 임상발전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2) 소아의 생리·병리에 대한 인식의 발전

6) 甄志亞 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 pp.186-187.
7)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40.

www.kci.go.kr

소아과학의 이론이 唐代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 생리적인 측면에서 錢乙은 “五臟六腑, 成而未全, 全而未壯”[8]이라 하였고, 楊士瀛은 『仁齋小兒方』에서 소아의 연령에 따라 用藥과 치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9].

變蒸에 대해 錢乙은 독창적 견해를 밝혔다. 『小兒藥證直訣』에서 “變者, 易也 …… 長生臟腑智意故也”[10]라 하여 變蒸은 소아가 생장 발육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생리현상 중의 하나라고 보았고, 또한 “初三十二日一變, 生腎生志, 六十四日再變, 生膀胱 …… 生之九十六日三變, 生心喜. 一百二十八日四變, 生小腸 …… 一百六十日五變, 生肝哭, 一百九十二日六變, 生膽 …… 二百二十四日七變, 生肺聲 …… 二百五十六日八變, 生大腸, 二百八十八日九變, 生脾智, 三百二十日十變, 生胃 …… ”[11]라 하여 이러한 일련의 變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臟腑機能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병리적인 측면에서도 錢乙의 五臟病理觀을 특징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아는 성인과 달리 ‘風, 寒, 暑, 濕, 燥, 火’의 六淫 뿐만 아니라 ‘驚, 風, 困, 喘, 虛’가 소아 五臟의 병리적인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虛, 實’의 양면에서 五臟病理에 대해 천술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脾를 가장 중시하였다.

3) 소아 病因學의 발전

宋代의 소아 醫家들은 소아질병의 원인 가운데 특히 內因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錢乙은 소아 痲疹의 병인으로 胎毒說을 주장하였고, 脾胃虛弱이 소아 疳證의 원인이 된다고 여겼으며[12], 楊士瀛은 “小兒受病多生於熱, 熱則生痰, 痰者, 諸病之根也”[13]라고 하여 ‘熱’과 ‘痰’이 소아질병의 병인 및 병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4) 소아질병에 대한 인식의 제고

이 시기의 소아질병은 『聖濟總錄』에 110여종에 달하는 대량의 소아질병이 수록되어 있고, 『幼幼新書』에는 ‘新生兒病, 小兒內科雜病 …… 小兒時令性病, 小兒傳染病, 小兒五官病, 小兒口腔病, 小兒外科病, 小兒皮膚病’ 등등 비교적 상세하게 소아질병을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써 이전 시대보다 量的, 質的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흔히 나타나는 병에 대해 各家의 논술을 살펴보면 『局方』에서는 ‘疳, 痢, 驚風’을 위주로, 楊士瀛은 소아과 4대 難病인 ‘驚, 疳, 瀉, 痢’에 대해, 朱佐는 『類編朱氏集驗醫方』에서 소아의 ‘驚, 疳, 積, 熱’ 및 脾胃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소아과 질병은 ‘疳, 痢, 驚, 熱’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5) 소아 진단학의 특징

宋代의 소아 진단학은 이전에 비해 望診을 중시한 특징이 있다. 錢乙은 일찍이 ‘面上證, 目內證 및 소아吐瀉物’ 등을 통해서 소아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논하였고, 『保幼大全』, 『小兒病源方論』 등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보충, 발전시켰으며, 劉昉은 『幼幼新書』에서 소아에 관한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小兒指紋診法’을 완성하여 임상에 널리 응용하였고, 이를 기초로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 ‘耳後完骨’이나 ‘手大指 뒤의 白肉魚際上 脈絡’의 色澤 상태를 파악해서 질병을 판단하는 望診法을 발전시키는 등 송대 소아 진단학에서 望診의 발전이 이후 소아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6) 약물과 방제의 발전

소아과의 약물방면 또한 宋代에 큰 발전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방제방면도 급격히 발전하여 『太平聖惠方』에는 무려 2689종에 달하는 소아과 방제가 수

8)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卷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2.
9) 楊士瀛 著. 仁齊小兒方論·初生. 北京. 中國中醫藥出. 北京. 2006. p.356.
10)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卷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2.
11)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卷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2-3.
12)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卷上·諸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6. “疳, 皆脾胃亡津液之所作也 …… 致脾胃虛弱亡津液”
13) 楊士瀛 著. 仁齊小兒方論·瘡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22.

www.kci.go.kr

록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단순한 형태의 湯劑만이 아니라 '丸, 散, 膏, 丹' 등 다양한 제형을 운용하여 소아질병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바 이는 소아질병에 대한 치료약의 형태가 소아 치료의 특징상 보다 간편하고 복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太平聖惠方』에서는 食治를 중시하여 따로 「食治小兒諸方」 1권을 두어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兩宋 시기의 소아 용약분야에서 '金銀, 輕粉, 黑鉛' 등 毒性이 강한 광물성 약물을 남용하는 폐단이 있었다. 錢乙과 閻孝忠 등은 이러한 폐단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이후부터 이러한 약물들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항도 송대 소아에 관한 약물의 운용에 다양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소아과 流派의 탄생

여기에서 말하는 소아과 流派란 용약의 원칙상 '寒, 熱, 溫, 凉' 등 각각 다른 방법을 주장한 것으로써 錢乙과 陳文中이 그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錢乙은 용약에 있어서 '柔潤, 滋陰, 寒凉'을 위주로 하였고 '地黃丸', '升麻葛根湯' 등이 대표적인 처방으로 후인들은 錢乙을 소아과의 寒凉派 혹은 滋陰派, 淸熱派라 불렀다. 이후 董汲, 朱肱도 '寒凉', '淸熱', '解毒'의 방법으로 瘡이나 痲疹 등을 치료함으로써 錢乙의 '寒凉派'에 귀속시킬 수 있다.

陳文中은 용약에 있어서 溫補를 위주로 하였는데 특히 '木香散', '異功散', '補脾益眞散' 등 소아 脾胃를 溫補시켰기 때문에 소아과의 '溫補派' 혹은 '溫熱派'라 불린다. 이후 竇材 또한 이 파에 속하며, 그는 소아 痘疹이나 驚風 치료에 '金液丹'(硫黃), '薑附丸'(生薑, 附子), '霹靂湯'(川附, 桂心, 當歸, 甘草)' 등 주로 溫熱한 약제로 구성된 방제를 운용하여 치료하였다.

3. 小兒 瘡疹에 대한 연구

여기에서 말하는 小兒瘡疹이란 疹이 出하는 질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연원을 살펴보면 晋의 支法存이 痲疹의 증치를 언급한 이래 『石壁經』에서 臟腑病機의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痲疹과 天花의 구별을 시도하는 등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해서, 宋代 후기에 이르러 疹이 出하는 질병에 대해 임상과 이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瘡疹'에 대한 專書로써 현존하는 것으로는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1093년), 聞人規의 『痘疹論』(1232년), 陳文中의 『小兒痘疹方論』(1241年) 등이 있다.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瘡疹연구의 초기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언급한 斑疹은 소아의 각종 發疹性 질병을 총칭하는 것으로 명확히 어떤 질병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하며, 痘疹과 痘瘡의 구별 또한 모호하고 서로 혼동되어 기재된 부분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宋代에는 疹이 출하는 소아질환에 대해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그 요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痘瘡과 痲疹의 감별

우선 龐安常은 『傷寒總病論』에서 "熱毒內盛, 攻於臟腑, 餘氣流於肌肉 …… 此病有二種, 一則發斑, 俗謂之麻子, 其毒稍輕. 二則豌豆, 其毒最重, 多是冬溫所變"[14]이라 하였는데, 이는 天花와 痲疹을 구별한 초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치료 원칙

宋代의 傷寒 3家인 龐安常, 朱肱, 郭雍의 下法에 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龐氏는 瘡疹의 치료에 대해 "旣是裏實, 熱毒內盛, 則未發及欲發, 瘡斑未見, 皆宜下之也. 瘡已差則再下之"[15]라고 하여 下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朱肱은 "傷寒身熱固不可下, 瘡瘍發熱在表, 尤不可轉 …… 大抵瘡疹首尾皆不可下 …… 但用化毒湯, 紫草木通湯, 鼠粘子湯, 出得大盛, 即用犀角地黃湯解之"[16]라 하여 下法의 운용에 반대하고 苦寒을 원칙으로 치료해야

14) 龐安時 撰. 傷寒總病論·斑痘瘡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90.
15) 龐安時 撰. 傷寒總病論·斑痘瘡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90.
16)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85.

www.kci.go.kr

한다고 주장하였다. 郭雍은 龐氏와 朱氏의 설을 절충하여 “其一方盛, 冬感非常之溫氣, 腠理密閉不得出之時 …… 予先下之, 則溫毒盡去 …… 其二則瘡疱裏陷倒靨, 是大惡候 …… 急下之, 則可活矣 …… 其三瘡炮旣愈, 餘毒不已, 發爲大癰, 必解利之而後已 …… 此三可下時也, 舍是三者, 皆不可下矣”[17]라 하여 瘡疹을 치료할 때 무조건 下하는 것을 금하고, 3가지 ‘可下’한 증상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錢乙과 陳文中의 寒熱에 대한 논쟁을 宋代 ‘瘡疹’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후대 瘡疹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 醫家와 醫著

1) 錢乙

(1) 소아과에 대한 영향

宋代 소아과의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의서로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을 들 수 있다. 本書는 소아질병에 관해 辨證論治한 專書로 錢乙이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太平聖惠方』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아의 생리·병리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여 임상치료에 활용함으로써 후세 소아과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의 五臟辨證 이론과 이에 따른 방제는 비단 소아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후대의 易水學派, 滋陰學派, 溫病學派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各科의 임상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錢氏의 저작으로는 『傷寒論指微』 5권, 『嬰孺方』 百篇, 『錢氏小兒方』 8권, 『小兒藥證直訣』 3권 등이 있는데 『小兒藥證直訣』만이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다.

『小兒藥證直訣』은 모두 3권으로 上卷은 「脈證治法」 47條와 「小兒脈法」, 「五臟病」을 비롯하여 「急慢驚風」, 「疱疹」, 「傷風」, 「吐瀉」, 「咳嗽」, 「疳」, 「積」, 「蟲癖」, 「腫」, 「雜證」 등의 81篇이 기재되어 있고, 中卷은 醫案 23則, 下卷은 方劑 114종이 실려 있으며, 附錄에는 錢氏의 제자인 閻季忠이 저작한 『閻氏小兒方論』, 山東 東平의 소아과 의생인 董汲이 저작한 『小兒斑疹備急方論』, 劉跂가 撰한 『錢仲陽傳』 등이 수록되어 있다.

『小兒藥證直訣』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錢氏가 중시한 소아의 생리·병리 특징, 脾腎의 調理, 소아 臟腑證治 이론, 소아 常見病인 外感發熱, 吐瀉 및 疸, 疹, 驚, 疳 등의 四大症에 대한 論治, 方劑의 특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사상

錢乙의 의학 사상을 다음과 같은 열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18].

① 전을의 『小兒藥證直訣』은 『顱顖經』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生理, 病理, 方劑의 內容을 비교하면 『顱顖經』은 『小兒藥證直訣』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없고,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太平聖惠方』 등을 계승하여 錢氏가 소아과 분야에 있어 직접적인 臨床經驗을 總括하여 논술하고 있다.

② 소아 질환에 관하여 진단상의 어려움과 6세 이하에 관한 언급이 『內經』에는 없고 北宋 이전에는 소아 질환에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여, 錢氏는 『小兒藥證直訣』에서 小兒科學의 系統性을 처음으로 갖추어 발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③ 소아 질환의 진단 분야에 있어 四診合參하면서도 특히 望診을 重視하였고, 아울러 五臟辨證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소아의 질병을 진단하였다.

④ 錢氏가 주장한 五臟辨證의 방법은 『內經』의 整體觀을 기초로 하여 臨床的인 經驗을 토대로 天人相應의 觀點을 確立한 것으로, 먼저 主證을 明確히 밝히고 다음 기타 症候의 관계를 밝힌 다음 虛, 實, 寒, 熱의 屬性을 판별하여 계통적인 소아의 생리기능 관계로 귀납시켰다.

⑤ 錢氏는 당시까지 未洽한 분야인 ‘斑疹’에 관하여 연구를 중시하였고, 당시에 ‘急驚’을 치료하는 약물로 ‘慢驚’을 다스리는 습관을 비판하고, 그는 ‘急驚’은 凉瀉하고 ‘慢驚’은 溫補의 방법으로 나누어 다스

17)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85.

18) 吳峻煥, 金基郁, 朴炫局. 錢乙의 醫學思想에 關한 硏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2). p.152.

www.kci.go.kr

리고 '從肝主風, 心主驚'의 학설을 제창하고 '驚風'학설을 확립하였다.

⑥ 당시에 香燥한 藥物을 편향되게 濫用함에 반대하여 錢氏는 柔潤한 性質의 약물을 사용하여 처방을 구성하였고, 方藥 방면에 있어 五臟의 虛實寒熱에 따른 辨證에 투철하여 攻不傷正, 補不滯邪, 消補兼施하는 치료를 강조하였다.

⑦ 당시에 소아과에 관한 학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錢氏의 학술적인 영향을 받은 金元四大家로부터 소아과 영역에서도 점차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溫燥한 약물로 '痘痲'를 치료함에 반대한 錢氏는 寒凉한 약물로 驅下한 치법을 응용하여 後世 寒凉派에 영향을 미쳤으며, 陳文中은 燥熟溫補의 약물로 '痘痲'를 치료하여 溫補派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宋金 이래로 '痘痲'를 다스림에 있어 寒溫 二派를 형성시켜 소아과 학술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⑧ 錢氏의 학술 사상이 後人에 미친 영향으로는 明代의 萬全과 淸代의 吳塘과 民國의 惲樹珏에게 가장 많이 미쳤다. 萬全은 錢氏의 五臟辨證 학설을 밝혀 小兒 五臟의 有餘, 不足之說을 제창하였고, 吳塘은 錢氏의 小兒體質說과 小兒科의 用藥論을 밝혀 錢氏가 주장한 臟腑柔弱, 肌骨嫩怯, 易虛易實, 易寒易熱 등 소아의 생리 병리적인 특징을 밝혔고, 惲樹珏는 錢氏가 말한 天人相應觀과 時間과 症候의 내재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驚風, 發搐을 다스리는 錢氏의 '地黃丸', '瀉靑丸', '益黃散'에 관하여 方義와 臨症活用을 闡發하였다.

⑨ 錢氏의 五臟虛實에 관한 證治는 張元素의 臟腑病機 辨證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는데, 張元素가 사용한 '地黃丸', '瀉靑丸', '瀉心湯', '益黃散', '瀉黃散' 등은 五臟 補瀉에 있어 표준이 되는 方劑로 錢氏의 治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錢氏가 小兒의 脾胃를 重視한 관점은 補土派인 李東垣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소아 補益腎陰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 '地黃丸'은 朱震亨이 '大補陰丸'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金元四大家에 영향을 미쳤다.

⑩ 錢氏의 五臟辨證 學說에 있어 비록 五臟辨證에는 상세하게 논술하지만 六腑辨證에는 소홀하였고, 方藥 方面에 있어 驚疳을 다스리는 方劑는 맹렬한 독성을 지녔거나 광물성 약품을 많이 사용하여 현재 임상에서는 잘 쓸 수 없는 것은 결점이다.

2) 閻孝忠

閻孝忠의 字는 資欽, 北宋의 許昌(지금의 河南許昌) 사람으로 錢乙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소아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의 저작으로는 錢乙의 흩어진 方論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校勘編次한 『小兒藥證直訣』과 錢乙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정리한 『閻氏小兒方論』 및 『集效方』이 있다. 그의 소아과에 대한 주요 공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아 五難을 제시

閻氏는 『小兒藥證直訣·序』에서 "自六歲以下, 黃帝不載其說. …… 則小兒之病, 雖黃帝猶難之, 其難一也. …… 小兒脈微難見, 醫爲持脈, 又多驚啼, 而不得其審, 其難二也. 脈旣難憑, 必資外證. 而其骨氣未成, 形聲未正, 悲啼喜笑, 變態不常, 其難三也, 問而知之, 醫之工也. 而小兒多未能言, 言亦未足取信, 其難四也. 臟腑柔弱, 易虛易實, 易寒易熱, 又所用多犀, 珠, 龍, 麝, 醫苟難辨, 何以已疾, 其難五也"[19]라 하여 五難을 들어 소아 치료의 어려움과 소아질병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였다.

(2) '驚風'을 연구하여 錢乙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閻氏는 치법에서 急·慢驚風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술하여 錢乙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우선 그는 急·慢驚風을 이전의 陰陽癇이라 규정하고, 急驚風은 陽에 속하여 증상의 변화가 '動而速'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慢驚風은 陰에 속하여 증상의 변화가 '靜而緩'하지만 危證으로 설명하였다.

慢驚風의 치료에 사용한 金液丹은 단지 '硫黃' 하나만 사용한 처방인데 이를 근거로 보면 硫黃은 溫腎壯陽하는 약물로써 腎陽虛를 慢驚風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驚風의 전반

19)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7.

www.kci.go.kr

적인 치료에 있어서 閻氏는 “治小兒驚風, 痰熱, 堅癖, 能不用水銀, 輕粉甚便, 如不得已用之, 僅去疾即止. 蓋腸胃易傷, 亦損口齒”[20], “驚風或泄瀉等諸病, 煩渴者, 皆津液內耗也. 不問陰陽, 宜煎錢氏白朮散, 使滿意, 取足飮之, 彌多彌好”[21]라 하여 有毒하고 重墜한 약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小兒衛生總微論方』

저자 및 정확한 成書 연대는 알 수 없으나 原書의 「序文」에서 언급한 “余先君有『小兒衛生總微論方』二十卷, 家藏甚久, 今六十餘載矣”[22]라 한 내용을 근거로 약 1156년 전후에 成書된 것으로 유추되며, 明·弘治 己酉年(1489년)에『保幼大全』으로 개명되어 다시 출간되었다.

全書는 모두 20卷, 108論으로 구성되었는데, 1卷의 「醫工論」에서는 우선 ‘正己’, ‘正物’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논술함과 동시에 「稟受論」, 「初生論」, 「回氣論」, 「洗浴論」 등에서 ‘小兒稟受, 新生兒不乳, 臍風撮口’ 등 소아병에 대한 증치를 논술했고, 2卷에서는 嬰兒의 관리법 및 小兒色澤과 指紋 등을 근거한 진단법과 五臟主病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3卷에서는 小兒變蒸과 脈診, 4卷에서 16卷까지는 驚癎, 傷寒, 瘡疹, 吐瀉, 諸利, 五疳, 蟲疾, 腫證, 咳嗽, 黃疸, 淋證 등 소아의 內科雜病, 17卷에서는 癩疝陰腫, 腸癰及針刺, 異物, 蟲跤, 跌撲 등의 諸般雜證, 18卷에서는 頭面五官病證, 19卷에서는 소아외과와 피부질환에 대해 論하였으니,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아의 연령범위의 확정

이전까지는 소아의 연령범위가 15세 혹은 18세까지 등 몇 가지 설이 있었으나 本書에서는 “其十五以上者, 天癸已行, 婚冠旣就, 則爲大人治耳”[23]라 하였고 또 “以今時言之, 當以十四以下爲小兒治”[24]라 하여 15세 이상을 大人, 14세까지를 小兒로 규정하고 치료하였으며 이는 이후 소아 치료의 연령기준이 되었다.

(2) 臍風과 破傷風의 유사점을 제시

病因, 症狀, 治則, 方藥 외에 本書에서는 臍風의 성질에 대해 “臍風撮口, 亦如大人因有破傷而感風 …… 與此候頗同 …… 乃最惡之病也”[25]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소아의 臍風과 성인의 破傷風의 성질이 서로 같다고 주장하였으며 치료에 있어서는 ‘烙臍’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용약 방법의 발전

本書에서는 용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형으로 다양하게 운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① 吹喉法

19卷 「咽喉總論」에 기재된 ‘綠雲散’을 보면 ‘喉痹, 馬喉, 纏喉, 乳蛾, 重舌, 木舌’ 등 일체의 咽喉病을 주치하는데 “用葦筒入藥, 吹入喉中”[26]이라 하여 그 용법의 특이성을 설명하였다.

② 外塗法

“嬰兒初生未滿月, 驚著似中風欲死者 …… 以好朱砂, 用新汲水磨濃汁, 塗五心上, 神驗”[27]라 하여 朱砂를 外塗法에 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③ 油引法

‘油引散’은 ‘石鷰子, 虢丹, 膩粉, 麝香’ 등으로 구성되어 ‘小兒聤耳內生瘡’을 주치하는데, 용법을 보면 “同研勻, 先以綿撚子搌耳中膿汁盡時, 側臥, 摻藥一字許, 入耳中, 以好油一滴引下, 立效”[28]라 하였다.

---

20)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附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08.
21)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附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07.
22)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
23)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大小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5.
24)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大小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5.
25)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1·臍風撮口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3.
26)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19·咽喉總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533-534.
27)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4·驚癎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86.
28)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18·耳中諸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06.

www.kci.go.kr

④ 驅蟲藥服法

驅蟲藥은 “唯於每月初四, 五日間, 在五更時服之, 至日午前, 蟲盡下矣”[29]라 하여 일반적인 용약법과는 다른 점을 설명하였다.

(4) 望診의 중시

“血氣未充, 膚革未固, 筋骨未堅, 脈狀未成, 若有病也, 難爲診切, 又難訪問, 是以先賢言嬰小之病難治者, 以無承據也”[30]라 하여 소아의 진단상의 어려움, 특히 그 중에서도 問診과 切診의 어려움을 들고 이를 극복하고자 소아의 形色을 살펴보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망진 방법

망진하는 방법은 우선 의사의 정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不得於兒哭斷之時, 睡起之際, 則色不正矣”[31], “須於辰時之後, 巳時之前, 夏即未熱, 冬即未溫, 外色不雜, 內氣閑雅, 乃可問明而觀察之也”[32]라 하여 소아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그 형색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② 망진 내용

망진의 목표는 色澤과 紋狀의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 色澤

色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병변부위 및 병세의 順逆과 예후를 확정지었다. 예를 들어 ‘面上五臟部分色’으로 얼굴 각 부위와 五臟을 서로 배속시켜 해당하는 病色과 主病을 규정하고, ‘面上五臟四時色’으로 四時에 따라 주관하는 臟과 色을 규정하며, ‘面上五臟生死色’과 ‘面目死生色’으로 얼굴을 관찰하여 死, 生, 壽夭 등의 상황 및 병세 변화, 예후, 順逆 등을 진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紋狀

三關의 指紋 변화 및 귀 뒤쪽 完骨과 엄지 뒤쪽 白肉 및 魚際에 위치한 脈絡의 色澤 변화를 관찰한다. 三關의 指紋 진단법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2권을 보면 “最下一節, 名爲氣關, 有紋過者, 病纔覺重, 諸病旣生, 則氣不調順, 故名氣關也. 第二節, 名爲風關, 有紋過者, 須發驚風, 漸加困重, 故名風關也. 第三節, 名爲命關, 有紋過者, 則病極而命危, 故名命關也”[33]라 하여 氣·風·命의 三關을 규정하였다. 이와 아울러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魚刺形, 垂針形, 水字形, 乙字形, 去蛇形, 來蛇形, 蛇中卷形, 弓形與環形, 亂紋形, 珠形’ 등 10가지 紋形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紋形마다 그 主病과 主病歌를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5) 脾胃의 중시

소아는 생리적인 면에서 “小兒初生 …… 臟腑皆以脾胃爲養, 兒自生以後, 得五穀所滋, 則臟氣充而骨髓完”[34]이라 하여 출생 이후 소아는 전적으로 脾胃에 의존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병리적으로 “脾主困 …… 脾臟冷熱皆主吐瀉困倦”[35]이라 하여 소아질병의 대부분이 脾胃기능의 失調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吐瀉, 下痢, 疳證, 腫病, 虛羸, 食氣積癖, 黃疸, 夜啼, 弄舌 등이 모두 脾胃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脾胃病 치료에 사용한 처방을 살펴보면 瀉脾를 목적으로 巴豆, 大黃, 檳榔 등을 君藥으로 삼은 ‘不二丸’, ‘木香芥粒丸’을 썼고, 脾虛나 脾胃不和에는 健脾, 行氣, 理氣를 위주로 하여 白朮, 肉豆蔻, 陳皮, 木香, 丁香, 黃連 등을 君藥으로 삼은 ‘豆蔻丸’(木香, 肉蔻, 草蔻, 檳榔, 青皮, 陳皮, 京三棱), ‘沈香散’(沈香, 丁香, 木香, 桂心, 甘草, 茯苓, 藿香) 등을 이용하였다. 이는 『小兒藥證直訣』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9)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1·諸蟲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49.
30)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3·脈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
31)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諸般色澤紋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6.
32)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諸般色澤紋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6.
33)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諸般色澤紋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0.
34)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顖門腫陷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8.
35)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2·諸般色澤紋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5.

www.kci.go.kr

(6) 증상에 대한 감별진단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병이고 어떤 성질인지 구별한 후에 용약함으로써 감별진단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아의 발병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身熱의 증상에 관하여 "凡小兒有病, 皆須身熱"[36]이라 하고, 身熱의 종류를 15종으로 나누어 열을 발생시키는 原因과 兼症에 대해 "小兒身熱, 昏睡驚悸, 喜嚏噴, 耳尻冷, 此爲瘡疹候 …… 此與食傷變蒸相似. 傷寒耳尻皆熱, 變蒸唇上有疣泡珠子爲異", "小兒身熱者, 更有內外 …… 在內者宜下之, 在外者宜散之"[37]라 하여 보다 명확히 설명하였다.

4)『仁齋小兒方』

楊士瀛이 1264년에 저술했다. 楊士瀛의 字는 '登義', 號는 '仁齊'이고, 南宋시기 三山郡(지금의 福建省 福州市) 출신이며, 저서로는『仁齋直指方論』,『小兒方論』,『傷寒類書活人總括』,『醫學眞經』등이 있다.

本書는 모두 5권으로 1권은「初生」,「變蒸」,「驚」, 2권은「中風」, 3권은「疳」,「積」,「熱」, 4권은「傷寒」,「痰嗽」,「脾胃」,「丹毒」,「雜證」, 5권은「瘡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아 연령의 세분화

楊氏는 "男兒兩歲尙爲嬰, 三歲四歲幼爲名, 五六次第年少長, 七齠漸論情, 九歲爲童十稚子 …… "[38]라 하여 소아의 성장과정을 몇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小兒期는 신체 발육 속도가 가장 왕성할 때이므로 발육과정과 성장 시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생리·병리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임상과 연계시켰다.

(2) '驚, 疳, 瀉, 痢'를 중시

楊氏는 1권에서 "小兒病證, 惟驚, 疳, 瀉, 痢四者難治"[39]라 하여 '驚, 疳, 瀉, 痢'가 소아질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또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라 하였다.

(3) 소아의 養護를 중시

1권「乳子調護歌」에서는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嬰兒의 '初生衣着, 拭口, 消息法, 薄衣法, 乳哺法, 用藥法, 愼護風池法, 灸以防病法, 有病宜早下之等法' 등에 관한 養護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5권에서는 疱疹을 논하면서 "調護法, 首尾俱不可下, 但溫諒之劑兼而濟之, 解毒和中安表而已 …… "[40]라 하여 발병한 후의 보다 자세하고 세심한 養護法을 설명하였는데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5)『幼幼新書』

南宋시기 劉昉(字는 方明)이 撰했고, 1150년에 성서되었다. 全書는 모두 40권이고 547門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권은 求端探本으로 求子에 관한 論方이고, 2권은 方書敍例가 수록되어 소아질병의 진단, 용약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였고, 3권은 病源形色, 4권은 形初保育으로 初生兒의 養護法을 기술하고 있으며, 5권에서 39권까지는 소아 諸病의 論治에 관한 내용이고, 40권은 論藥敍方이 수록되어 당시 소아과 관련 의서 중 내용이 가장 풍부하다. 이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三關指紋診法의 정리

'虎口三關指紋診法'에 관한 내용은 宋代 이전의 저작인『王超仙人水鏡圖訣』이나, 宋代 許叔微의『普濟本事方』등에 산재되어 있었고,『幼幼新書』에서 三關指紋診法 계통의 내용들을 귀납 총결함으로써 三關指紋診法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三關 부위의 再定立

36)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3·諸身熱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71.
37)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卷3·諸身熱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73.
38) 楊士瀛 著. 仁齊小兒方論·初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56.
39) 楊士瀛 著. 仁齊小兒方論·初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56.
40) 楊士瀛 著. 仁齊小兒方論·瘡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22.

www.kci.go.kr

本書에서 인용된 「脈形論」에서 “兒手指第二指有三節, 脈之形出其上, 近虎口之位號曰風關, 其次氣關, 指端曰命關凡有疾, 當視三關之脈, 察病斷之”[41]라 하여 指根에서 指端까지 순서대로 風·氣·命이라 명명하였다. 다른 인용 자료인 杜光庭의 『指迷賦』에는 “虎口紋臨, 次指分三等 …… 氣在下紋, 風居中裏, 過風關名曰命關”[42]이라 하여 원래 순서와는 뒤바뀌어 命名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三關指紋法이 처음 나타난 후 두 가지 서로 다른 설이 공존하여 전해져 오다가 『幼幼新書』에서 비로소 통일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

② 左右 구별에 대한 定立

三關指診法은 이전에는 ‘男左女右’의 설에 따라 杜光庭의 『指迷賦』에서는 “女尋右手, 男看左指”[43]이라 하였고, 「脈形論」에서는 “指, 左手指也”[44]이라 하여 좌측 손가락만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나 劉氏는 두 설이 모두 미흡하다고 보아 통상적으로 양쪽 손가락 모두를 자세히 살펴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진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八片錦診法

八片錦은 ‘八段錦’, ‘八錦紋’, ‘八脈’이라고도 불리는데, 『幼幼新書』 三關指紋의 주요한 관찰방법이라 할 수 있다. 劉昉은 紋形과 紋色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 紋形

紋形의 변화와 뻗어나간 방향의 유형에 따라 八片錦을 논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八片錦을 ‘魚刺形’, ‘懸鍼形’, ‘水字形’, ‘乙字形’, ‘曲蟲形’, ‘環形’, ‘亂紋形’, ‘流珠形’ 등 8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紋形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懸鍼形’의 경우 “風關水驚亦醫. 氣關疳入肺亦醫. 三關通度慢驚候, 下二關不斷, 難療. 單關亦醫”[45]라 하여 그 主病을 논하고 각각의 병증을 설명하였다.

둘째, 八片錦의 指紋을 방향성에 따라서 ‘曲向裏’, ‘曲向外’, ‘曲向左’, ‘曲向右’, ‘雙鉤’, ‘三曲如長蟲’, ‘兩曲如鉤’, ‘一頭如環’ 등으로 분류하고 역시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氣疳’, ‘風疳’, ‘傷寒身熱不食’, ‘傷寒’, ‘傷硬物’, ‘傷冷’ 등 그 主病을 논하였다.[46]

㉡ 紋色

紋色을 기준으로 삼아 논한 것으로, 질병의 영향으로 虎口三關 부위에 각기 다른 色澤을 나타내며 그 色澤에 따라 主病을 설명하였다.[47]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八片錦診法은 虎口三關 부위의 특징적인 紋形 및 紋色에 따라 병세를 판단하는 진단방법으로써 작자는 三關의 源流, 派別, 紋形, 紋色 등 指紋 진단법을 총결하여 밝힘으로써 이후 소아과 임상에서 指紋 진단법이 널리 응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驚風을 중시

錢乙의 急·慢驚風에 대한 論治體系를 기초로 『幼幼新書』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헌과 理法方藥 등 각 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驚風學說을 완비시켰다.

예를 들어 그는 巢元方, 錢乙, 張涜 등의 이론과 『石壁經』, 『太平聖惠方』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急驚風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천발하였다. 또한 ‘追風丸’(乾葛, 僵蠶, 川烏頭, 白附子, 天南星, 幹薑), 張涜의 ‘已風丹’(白僵蠶, 乾蝎, 白附子, 防風, 天竺黃, 鉤藤) 등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急驚風에 관련된 방제를 수록하였다.

‘慢驚’, ‘慢脾’, ‘急驚風’ 세 가지로 구성된 驚風學說의 내용 중에서도 ‘慢脾風’에 대한 내용은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써 병인, 병리, 증상, 진단, 치료, 예후 등 모든 방면에 걸쳐 慢脾風을 계통화·체계화시켰다. 그

41) 劉昉 撰. 幼幼新書·三關錦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4.
42) 劉昉 撰. 幼幼新書·病源形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54.
43) 劉昉 撰. 幼幼新書·病源形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54.
44) 劉昉 撰. 幼幼新書·三關錦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4.
45) 劉昉 撰. 幼幼新書·三關錦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5.
46) 劉昉 撰. 幼幼新書·三關錦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31-36.
47) 劉昉 撰. 幼幼新書·三關錦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31-36. “赤, 黑, 白, 青色長, 黃, 中心紅 등의 색택변화가 ‘驚風入心, 顔門腫起, 水驚, 小腹膨脖, 高處墜撲, 驚噤’ 등의 病變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www.kci.go.kr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病因

여기에서 언급한 가장 큰 원인은 “吐瀉虛損脾胃而成”[48], “脾風多因吐得”[49]이다. 다음은 “因久瀉痢而風冷藥止之, 脾不得活, 是以脾虛弱, 臟腑乘虛故也”[50]라 하여 脾氣가 虛冷에 손상된 것이다. 그 다음은 “治慢驚 …… 不退成慢脾風”[51]이라 하여 慢驚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慢脾風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② 症狀

「華佗九候」에서 인용한 “其候面色青唇色黃, 口角有沫, 多睡不醒, 或時手脚似搐, 肢冷脈沈弱”[52], “慢脾風候, 時時吐嘔, 頻頻咬齒, 手足掣瘛, 舌卷頭低, 兩眼上視”[53] 등이 일반적인 驚風 증상의 범주에 속한다면, 심한 경우 “直眠不動, 臥如尸, 遍體如水, 汗若泥. 眼目不開, 常似睡”[54]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③ 鑑別

慢脾風이 慢驚風과 비슷하므로 이를 자세히 감별해야 하는데 그 감별은 “脾風多因吐得, 必有風痰. 慢驚風者, 虛積生也”[55]라 하였고 또 “慢驚風眼喜張, 慢脾風眼喜閉”[56]이라 하여 증상 및 병인에 따라 구체적인 감별법을 설명하였고, 慢驚 또한 慢脾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④ 治療

‘醒脾, 健脾, 取涎熄風’을 治則으로 삼아 ‘玉訣醒脾散’(南星, 白朮, 麝香, 生薑), ‘毛彬銀白散’(乾葛, 人蔘, 白茯苓, 山藥, 白扁豆, 半夏, 糯米), ‘鄭愈醒脾散’(藿香, 人蔘, 白茯苓, 天南星, 冬瓜子) 등의 방제를 열거하였다.

⑤ 豫後

“口四角眉黑者, 慢脾風, 死”[57], “脈微微, 昏昏只睡 …… 或若搖頭, 並口噤 …… 萬中無一可能醫”[58]라 하여 驚風 증상 가운데 치료가 힘든 경우를 구별하였다.

(3) 소아과 질병분류방법의 체계화

劉昉이 『幼幼新書』에서 소아과학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전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권은 「初生有病」으로 대부분 신생아 질병에 관한 것으로 17門으로 나누었고, 6권은 「稟受諸疾」, 7권은 「蒸忤魅啼」, 8권은 「驚潮狂困」, 9권은 「驚風急慢」, 10권은 「驚釣噤病」, 11권은 「癇論候法」, 12권은 「五癇異治」, 13권은 「胎風中風」, 19권은 「諸熱痰涎」, 20권은 「熱蒸汗疸」, 21권은 「寒痛逆羸」, 22권은 「癥瘕積聚」, 23권은 「五疳異治」, 24권은 「無辜疳劇」, 25권은 「諸疳異證」, 26권은 「諸疳餘證」, 27권은 「吐噦癨亂」, 28권은 「泄瀉羸腫」, 30권은 「諸血淋痔」, 31권은 「三蟲癩疝」[59], 14권은 「熱風暑寒」, 15권은 「傷寒變動」, 16권은 「咳嗽諸病」, 17권은 「寒熱瘧瘴」, 32권은 「水飮鬼疰」[60], 18권은 「斑疹痲痘」, 29권은 「泄痢赤白」[61], 33권은 「眼目耳鼻」[62], 34권은 「口脣喉齒」[63], 35권은 「一切丹毒」, 36권은 「癰疽瘰癧」, 39권은 「鯁刺蟲毒」[64], 37권은 「瘡瘍疥癬」, 38권은 「頭瘡凍瘃」[65]에 대해 논하였다.

이상과 같이 『幼幼新書』에서는 이전보다 보다 구

48) 劉昉 撰. 幼幼新書·病證形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58.
49) 劉昉 撰. 幼幼新書·慢脾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35.
50) 劉昉 撰. 幼幼新書·慢脾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34.
51) 劉昉 撰. 幼幼新書·慢脾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35.
52) 劉昉 撰. 幼幼新書·病證形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58.
53) 劉昉 撰. 幼幼新書·慢脾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34.
54) 劉昉 撰. 幼幼新書·慢脾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35.
55) 劉昉 撰. 幼幼新書·慢脾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335.
56) 劉昉 撰. 幼幼新書·病證形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63.
57) 劉昉 撰. 幼幼新書·病證形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58.
58) 劉昉 撰. 幼幼新書·病證形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58.
59) 小兒 內科雜病에 관한 내용임
60) 小兒 時令性 疾病에 관한 내용임
61) 小兒 傳染病에 관한 내용임
62) 小兒 五官病에 관한 내용임
63) 小兒 口腔病에 관한 내용임
64) 小兒 外科病에 관한 내용임
65) 小兒 皮膚病에 관한 내용임

www.kci.go.kr

체적이고 상세하게 분류함으로써 소아질병의 예방 및 임상운용에 쉽게 접근하게 하였다.

6) 陳文中

字는 '文秀'이고, 저작으로는『小兒病源方論』,『小兒痘疹方論』등이 있다.

『小兒病源方論』은 1254년에 성서된 것으로 全書는 4권이다. 1권「養子眞訣」과「小兒變蒸候」에서는 소아의 保養 및 발육에 대해 논했고, 2권「形證門」에서는 面部의 圖形을 덧붙여 그에 따른 증상을 설명하였고, 3권「驚風門」에서는 각 證에 따른 方藥을 기술하였고, 4권에서는「驚風」및「痘瘡」등에 대해 설명하였다.『小兒痘疹方論』은 1241년에 成書되었으며 全書는 1권으로 痘疹의 병인, 치료, 방약에 대해 논하였다.[66] 이상 소아병에 관한 두 책의 의서를 통해 陳文中의 학술사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小兒病源方論』

① 溫補로 脾胃 치료를 중시함

陳文中의『小兒病源方論』에는 溫補를 중시하는 학술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2권「方藥」에 수록된 12가지의 방제 중 溫熱, 補陽하는 방제가 10首에 달하고, 4권「痘瘡引論」에서는 痘瘡泄瀉, 痘瘡痒塌, 瘡不成痂, 身溫頻渴, 瘡不起發 등의 증상에 '木香散'에 丁香, 官桂를 가하는 처방을 쓰거나 痘瘡咬牙寒戰, 表虛不長, 痘證驚搐의 증상에 '異功散'에 丁香, 附子을 가하는 溫熱한 약을 쓰는 등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또 陳氏가 자주 사용한 木香, 人參, 丁香, 陳皮, 厚朴, 白朮, 全蝎 등 常用藥과 '補脾益眞湯', '前朴散', '長生丸', '異功散', '木香散' 등의 방제는 모두 脾胃를 溫補하고 下氣寬中하는 治則에 따른 약물 및 방제로 脾胃를 溫補시키는 것을 중시한 陳氏의 학술사상을 엿볼 수 있다.

② 驚搐의 원인을 寒痰으로 봄

錢乙의 '熱極生風'설에 따라 후세의가들은 熱을 驚搐의 주원인으로 규정하고 치료하였으나, 陳氏는 오랜 임상경험 끝에 "寒暑燥濕之極, 亦能生風"[67]이라 하여 驚搐의 원인이 '熱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3권「論驚搐原因」에서는 "痰涎壅閉而作搐矣"[68]라 하여 風冷痰涎이 驚搐을 일으키므로 그 치료는 마땅히 "當去痰涎, 次固元氣"[69]해야 하고 처방은 먼저 '芎蝎散'(川芎, 藿撥, 蝎稍, 半夏)을 복용시켜 寒痰冷涎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油珠膏'(石亭脂, 滑石, 半夏, 黑附子, 天南星)으로 心肺를 潤하고 脾腎을 補하며, '補脾益眞湯'(木香, 當歸, 人蔘, 黃芪, 丁香, 訶子肉, 陳皮, 厚朴, 甘草, 白荳蔻, 草果, 茯笭, 白朮, 官桂, 半夏, 附子炮, 全蝎)으로 元氣를 溫壯시킨 후 '前朴散'(前胡, 白朮, 人蔘, 陳皮, 良薑, 藿香, 甘草, 厚朴)으로 寬上實下한다고 하였다. 陳氏의 독창적인 학술사상을 엿볼 수 있다.

③ 望診을 중시

소아의 面部 色澤과 三關指紋의 변화 등을 望診으로 분석하여 병원과 예후를 판단하였다. 특히 面部色診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陳文中은 '靑赤黃白黑' 五色과 '肝心脾肺腎' 五臟을 서로 연계시켜 面部의 色澤변화를 자세히 관찰한 후 진단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辨面色主病訣」에서는 "面色黃時疳積攻, 靑而黯色是驚風, 吐而亂白兼黃白, 若是傷寒色赤紅"[70]이라 하였고, "肝驚起發際, 肝積在食倉, 肝冷面靑白, 肝熱正眉當"[71]이라 하여 五臟에 따라 '驚, 積, 冷, 熱' 4가지 증후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2)『小兒痘診方論』

陳氏는 "嘗謂治小兒病證雖多, 而瘡疹最爲重病"[72]

66) 三木榮 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45. "手痘는 痘瘡과 混同되어 같이 섞여 내려오다가 陳文中의 小兒痘疹方論에서 처음으로 구별되었다."

67) 陳文中 著. 小兒病源方論 卷3·驚風門.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58.

68) 陳文中 著. 小兒病源方論 卷3·驚風門.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58.

69) 陳文中 著. 小兒病源方論 卷3·驚風門.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58.

70) 陳文中 著. 小兒病源方論 卷2·辨面色主病訣.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55.

71) 陳文中 著. 小兒病源方論 卷2·辨面色主病訣.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55.

72)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序.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

www.kci.go.kr

이라 하여 小兒 병증 가운데 痘疹을 중시하여 이에 대해 천발하였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병인

'三穢液毒'을 열거하였다. 첫째 五臟六腑 穢液의 毒이 水疱瘡을 발생시키고, 둘째 皮膚筋肉 穢液의 毒이 膿血 水疱瘡을 발생시키며, 셋째 毒이 표출될 경우 痘疹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胎毒으로 인한 內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변증

"先分表裏虛實, 如表裏俱實者, 其瘡易出易厭. 表裏俱虛者反是. 表實裏虛者, 其瘡易出難厭. 表虛裏實者亦反是. 若始出一日至十日, 渾身壯熱, 大便黃稠, 乃表裏俱實, 其瘡必先澤起發滿肥, 且易厭也"[73]라 하여 八綱辨證을 강조하였다.

③ 치법

陳氏는 痘疹의 치법에 대해 "治瘡疹之法, 與癰疽無異, 若邪氣在裏而實熱者, 用前胡枳殼, 怯而虛熱者, 用參茂四聖散, 虛弱者, 用紫草木香湯, 虛寒者, 用參芪內托散, 虛寒內脫者, 用木香散, 若邪氣在表而實熱者, 用麻黃甘葛湯, 此要法也"[74]라 하였다. 全書를 통해 陳氏는 痘疹의 치료에 溫補를 중시하여 瘡疹이 아직 表出되지 않을 때는 辛熱한 약으로 보하고, 表出되었으나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辛溫理氣하는 十二味異功散을 투여하였다. 또한 "若誤爲熱毒壅盛, 妄用宣利之劑 …… 則痂癢塌, 煩躁喘渴而死", "風症一見斑點, 便忌葛根湯, 恐發得表虛也"[75]라 하여 痘疹에 寒凉한 약을 투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다.

④ 관리

痘疹이 이미 표출된 경우에는 "當用此藥, 疏導托裏, 調和營衛, 使邪氣退則元氣不傷, 而痘瘡易愈也"[76], "表散外邪, 疏通內臟, 使邪氣不塞滯, 則痘瘡輕而易愈"[77], "子母俱忌食葱, 薤蒜, 醋酒, 鹽醬, 獐兎, 雞犬, 魚腥等物"[78]이라 하여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법을 설명하였다.

⑤ 方藥

대표적인 상용약으로는 '十一味木香散'(木香, 大腹皮, 人參, 桂心, 赤茯苓, 青皮, 前胡, 訶黎勒, 半夏, 丁香, 甘草), '十二昧異功散'(木香, 官桂, 當歸, 人參, 茯苓, 陳皮, 厚朴, 白朮, 半夏, 丁香, 肉寇, 附子), '升麻葛根湯'(升麻, 葛根, 白苟, 甘草) 등이 있다.

7)『小兒斑疹備急方論』

『小兒斑疹備急方論』은 北宋의 董汲이 撰했고 1092~1093년에 成書되었다.

董汲의 字는 汲之이고 東平(지금의 山東 東平縣) 사람으로 "予深嘉及之少年藝術之精"[79]이라 한 錢乙의 말로 미루어 볼 때 神宗(1068~1100년) 때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董汲은 임상경험이 매우 풍부한 의가로 특히 '斑疹' 방면에 뛰어났다. 幼年期에 董汲 자신이 斑疹을 앓아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행히 당시의 소아과 명의인 錢乙이 '牛李膏'를 써서 치료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董氏는 斑疹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한 경험을 살려 "斑疹欲出, 證候與傷風相類, 而略無辨說, 致多謬誤, 而複醫者不致詳慎, 或乃虛者下之, 實者益之, 疹者汗之, 風者溫之, 轉生衆疾, 遂致夭斃"[80]라 하였고 또한 "博選諸家, 及親經用有效者"[81], "說明證候, 通爲一卷, 目之曰『斑疹備急方』"[82]하여 諸

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3)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論痘疹治法.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4)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論痘疹治法.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5)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論痘疹治法.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6)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類集痘疹已效名方.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7)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類集痘疹已效名方.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8)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論痘疹受病之由.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9)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附後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38.

80)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自序.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05.

81)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自序.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05.

www.kci.go.kr

家들의 이론과 임상을 종합하여『小兒斑疹備急方論』을 저작하였다.

本書는 1권으로「總論」과「藥方」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總論」에서는 斑疹의 증후와 치료대법에 대해 논술했고,「藥方」에서는 17종의 방제 및 그 조성, 용법, 적응 증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全書는 모두 4천여자이고 書名이 뜻하는 것처럼 소아의 急性 斑疹熱에 대한 專書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病因

董汲은 斑毒의 원인으로 첫째 '胎毒'과 둘째인 '胃中積熱'를 들어 "小兒斑疹, 本以胎中積熱, 及將養溫厚, 偶胃中熱故乘時而作"[83]이라 하였다.

(2) 症狀

董汲은 "大抵斑疹之證, 始覺多咳嗽, 身體溫壯, 而色與四肢俱赤, 頭痛腰疼, 眼睛黃色, 多睡中瘈瘲, 手足掣, 耳尖及尻冷, 小便赤, 大便秘, 三部脈洪數絕大不定, 其候也"[84]라 하여 斑疹의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3) 治則

疱疹이 아직 出하지 않은 경우에는 下해야 하고, 이미 出한 경우에는 下하는 것이 不可하고, 충분히 出한 경우에는 大小便으로 利해야 한다고 하였다.[85]

(4) 治療

痘疹 病程을 단계별로 치료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① 痘疹이 出하려고 하나 未出者

즉 痘疹의 證候가 완전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升麻散' 즉 '升麻葛根湯'이나 '抱龍丸', '利毒丸' 등으로 解肌透表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發汗에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麻黃이나 芍藥 등으로 발한을 거듭하게 되면 表虛裏實하게 되므로 熱藥을 禁해야 하여 胃重熱極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② 痘疹이 이미 出하였으나 未快者

'紫草散', '白虎湯' 등으로 解肌透表해야 하고, 만약 熱毒이 深重하여 出하지 못하는 경우는 '玳瑁散', '利毒丸' 등으로 除熱解毒한다.

③ 痘疹이 內陷者

熱毒이 深重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牛李膏'(牛蒡子), '救生散'(猪猪血, 馬牙硝, 棚砂, 朱砂, 牛黃, 龍腦, 麝香) 등으로 치료한다.

④ 痲疹 후 여러 증상으로 변할 경우

痲毒入目한 경우에는 '調肝散'(犀角, 草龍膽, 黃芪, 大黃, 桑白皮, 鉤藤鉤子, 麻黃, 石膏, 括萎實, 甘草)으로 肝臟邪熱이나 斑疹餘毒을 치료하고, 斑疹入眼하여 翳膜侵睛한 경우에는 '蛇蛻散'(馬勃, 皂莢子, 蛇退皮)을, 斑瘡瘡疹入眼, 疼痛, 翳膜, 眼赤羞明한 경우는 '眞珠散'(括萎根, 蛇退皮, 羊子肝)을, 痲毒攻咽할 경우에는 '神仙紫雪'(黃金, 寒水石, 石膏, 犀角, 玲羊角, 玄參, 沈香, 木香, 丁香, 甘草, 升麻), '如聖湯'(桔梗, 甘草, 枳實, 麥門冬) 등을, 齦齒宣腫, 牙痛不能嚼物, 饑而不欲食, 煩熱, 身面黃, 瘡疱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痲後口瘡에는 '甘露飮'(生熟地黃, 天冬, 麥冬, 批把葉, 黃芩, 石斛, 甘草, 枳實, 山茵陳葉)을, 痲黃入胃하여 便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牛黃散'(鬱金, 牛黃)을 투여하고, 痘疹의 후유증인 瘢痕에는 胡荽酒나 黑丑을 태운 재를 痘瘡部位에 뿌린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董汲은 辛涼苦寒한 약물을 위주로 痘疹을 치료함으로써 溫補를 위주로 한 陳文中의 치료와는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痘疹論』

『痘疹論』은 南宋의 聞人規가 撰했고 1232년에 成書되었다. 本書의 서명은 '痘疹'이지만 실제 내용은 '天花' 등 '痘瘡'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全書는 두 권으로 나뉘어 上卷은「醫論」으로 81篇이고 下卷은「附方」이 수록되어 있다.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2)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自序.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05.
83)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小兒斑疹備急方.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06.
84)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小兒斑疹備急方.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06.
85)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小兒斑疹備急方.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06.

www.kci.go.kr

(1) 痘의 病因, 鑑別, 治療

本書의 최대 특징은 痘瘡의 병인, 감별, 치료에 대해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痘瘡의 熱과 기타 다른 병의 熱을 구별하여 "小兒瘡痘, 其初不免發熱, 然必須見四臟之證 …… 他病熱, 種種不同"[86]이라 하여 그 감별을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痘瘡 및 四臟의 毒은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痘瘡의 경우 반드시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出한다고 하였다.[87]

痘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聞人規는 오랜 임상관찰을 통해 "熱蒸三日則紅斑生 …… 紅斑出齊生血泡, 血泡七日結膿泡, 膿泡七日結痂疕, 此乃榮衛調和, 內外無諸傷犯"[88]이라고 그 규율을 총괄하였다. 동시에 痘瘡의 시작과 病程에 따른 형상을 비교 설명하고 "瘡痘已出而不遍匀者 …… 惟透肌解毒而已 …… 張氏云, 瘡疹氣匀則出快, 誠哉是言也"[89]라 하여 '調氣'를 위주로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快毒丹'(黑牽牛, 木香, 青皮, 肉果)을 創方하였다.

(2) 젖먹이와 어린이의 구별

聞人規는 "乳下嬰兒, 榮衛未足, 胃氣未全, 風冷易入, 乳食易傷, 如水上之泡, 草頭之露, 一旦迁疾, 不得已而用藥, 須精確審諦, 蓋藥性非寒則熱, 不表則下, 嬰兒多服藥, 乃是反爲之累, 不若常令乳母服餌, 間以少許與兒, 始爲良法. 彼能食童子, 自絕乳之後, 酒面甘肥, 魚肉滋味, 無不備嘗矣, 才有疾疚, 與大人治法一同, 但小其劑耳"[90]라 하여 젖먹이와 어린이는 각각 독특한 생리, 병리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젖먹이와 어린이로 구별하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각각의 용약 방법도 다르다고 하였다.

9)『太平聖惠方』

大型方書의 出刊은 宋代 의학의 큰 특징 중 하나이며 그 중 소아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和劑局方』,『太平聖惠方』,『聖濟總錄』이다. 우선『太平聖惠方』에 나타난 소아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대한 소아과 분량

宋의 王懷隱 등이 칙령을 받들어 992년에 저작한 것으로 全書가 100권이고, 1670門으로 분류하였고 16,834首의 방제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 구성의 특징은 매 證 앞에『諸病源候論』의 이론을 제시하고『內經』,『千金方』,『外臺秘要』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方藥 및 기타 각종 치료법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그 중 82권~93권이 '小兒方'이고 이 이외에 1권의「辨小兒脈法」, 76권의「孩子要用藥物」, 97권의「食治小兒諸方」이 소아과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수록된 소아방제만 무려 2689首로 당시까지 출간된 소아 관련 문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소아과의 질병에 관해 내과, 외과, 피부 및 소아 오관과에 걸쳐 모두 262門으로 분류되어 있고, 4종의 의론과 246종의 病源 등 방대한 소아과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小兒 疳病의 중시

먼저『太平聖惠方』에서는 疳病을 '五疳'으로 분류하여 "一曰肝疳, 其候搖頭揉目, 白膜遮睛, 流汗遍身, 合面而臥, 目中澁痒, 肉色青黃, 發堅頭焦, 筋青腦熱, 腹中積聚, 下痢頗多, 久而不痊, 轉甚羸瘦, 此是肝疳, 亦名風疳也. 二曰心疳, 其候渾身壯熱, 吐利無恒, 頰赤面黃, 胸膈煩懣, 脾乾心躁, 口舌生瘡, 痢久不愈,多下膿血, 有時盜汗, 或乃虛驚, 此是心疳. 亦名驚疳也. 三曰

86) 聞人規 撰. 聞人氏痘疹論 卷1·瘡痘之熱與諸熱不同者何第四 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85.

87) 聞人規 撰. 聞人氏痘疹論 卷1·名狀不同者何第三 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85. "瘡痘未有不因發熱而出者."

88) 聞人規 撰. 聞人氏痘疹論 卷1·始末日數有定論者何第十五 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91.

89) 聞人規 撰. 聞人氏痘疹論 卷1·出未匀者何第十七 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85. pp.193-194.

90) 聞人規 撰. 聞人氏痘疹論 卷4·乳下嬰兒與能食童子不同者何第八十 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238.

www.kci.go.kr

脾疳 …… 四曰肺疳 …… 五曰腎疳 …… ”[91]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一親著脚中, 指底不覺疼. 二抱著于足, 垂弹無力. 三病未退, 遍身不暖, 四臟腑瀉青涎, 及沫不止, 五項筋舒展無力, 如此候不可治也”[92]라 하여 五疳 중 치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인 五絶候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五疳丸’, ‘胡黃連丸’, ‘蘆薈丸’ 등 해당 방제를 수록하였다. 이 이외에 ‘眼疳, 口齒疳, 鼻疳’ 등 기타 疳症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0)『太平惠民和劑局方』

『太平惠民和劑局方』은 北宋 때에 官方藥局인 和劑局의 처방으로 1107~1110년에 걸쳐 당시 명의인 ‘陳承, 裴宗元, 陳師文’ 등의 校正을 거쳐『和劑局方』이라 명명하였고 이후『太平惠民和劑局方』으로 개명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

全書는 모두 10권 14門으로 분류되어 788종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제10권「小兒諸疾」에 소아과와 관련된 丸과 丹方 92종 및 탕제 26종이 수록되어 있다. 全篇에 걸쳐 소아질병에 관한 理·法·方·藥 및 辨證論治에 대해 자세히 천발하였고 그 가운데 소아의 ‘疳·痢·驚·風’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驚風論治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논한 驚風은 대부분 急驚에 대한 것이다. “軟金丹: 治小兒驚風壯熱, 多睡驚掣, 精神昏, 痰涎壅塞, 手足搐搦, 目睛上視, 項背強硬, 耳關緊急”[93], “太一銀朱丹: 治小兒驚風壯熱, 涎盛發癇, 手足搐搦, 目睛上視, 及風壅壯實, 心膈滿悶, 嘔吐痰涎, 大便秘澀”[94]이라 하여 急驚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慢驚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약에 있어서는 天南星, 白附子, 乾蝎, 朱砂 등을 善用하였고, 방제는 ‘天南星丸’(龍腦, 牛黃, 乳香, 天南星, 人蔘, 天麻, 防風, 朱砂, 乾蝎, 麝香), ‘至聖保命丹’(全蝎, 白附子, 天南星, 白殭蠶, 朱砂, 麝香, 防風, 天麻, 金箔, 蟬蛻), ‘定命丹’(靑黛, 蟾酥, 乾蝎, 麝香, 白附子, 天南星), ‘八珍丹’(甘草, 天麻, 朱砂, 天南星, 牛黃, 膩粉, 雄黃, 天漿子, 銀箔), ‘鎭心至寶丹’(天南星, 白附子, 雄黃, 乾蝎, 白殭蠶, 鬱金, 龍腦, 麝香, 辰砂, 膩粉, 滑石), ‘蛇頭丸’(蛇含石, 鉄膩粉, 五靈脂, 神砂, 蝎梢, 白附子, 鬱金, 龍腦, 麝香, 花蛇頭)’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2) 下痢施治

소아의 痢證에 當歸, 木香, 黃連, 乾薑 등의 약물을 교묘하게 운용하여 寒에 치우치면 黃連을 去한 ‘木香白朮散’(訶稱勒, 龍骨, 厚朴, 當歸, 木香, 乾薑, 白朮)을, 熱에 치우치면 乾薑을 거한 ‘豆寇香連丸’(黃連, 肉荳蔻, 丁香, 木香, 訶稱勒)을, 寒熱이 뚜렷하지 않거나 寒熱이 不調한 경우 두 약물을 配伍하여 응용한 ‘小駐車丸’(當歸, 訶子, 乾薑, 黃連), ‘龍骨丸’(黃連, 黃伯, 白龍骨, 訶稱勒皮, 木香, 當歸, 乾薑, 白矾, 胡粉)을 운용하였다.

(3) 疳證施治

疳證의 치료에 殺蟲의 효능을 지닌 使君子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전체 疳證 처방의 70%에 응용되어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렸다.

예를 들어 疳證이 오래되어 陰虛盜汗하거나 심한 경우 虛驚 증상이 있으면 使君子에 胡黃連, 天漿子, 靑黛, 麝香 등 補陰·除熱·止驚하는 약물을 가미한 ‘熊膽丸’(熊膽草, 黃連, 靑皮, 使君子)을 운용하였고, 脾虛·泄利·腹脹한 경우에는 ‘木香, 肉蔻, 詞子’ 등 行氣·消滯하고 醒脾·止瀉하는 약물을 가미한 ‘六神丹’(丁香, 木香, 肉荳蔻, 詞子, 使君子, 蘆薈)을 사용하였다.

한편『和劑局方』의 용약법에서 辛香燥烈한 약물에 치우친 폐단이 많았다. 소아과 분야 또한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 燥烈한 약성에 치우친 점이 많아

91) 王懷隱 編. 太平聖惠方 卷第八十六·小兒五疳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92) 王懷隱 編. 太平聖惠方 卷第八十六·小兒五疳不可治候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93) 宋·太平惠民和劑局 編.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40.
94) 宋·太平惠民和劑局 編.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40.

www.kci.go.kr

黑鉛, 水銀, 寒水石, 胡粉, 膩粉, 鐵粉, 硫黃, 金箔 등 독성이 강하고 重墜한 성미를 가진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다.

11)『聖濟總錄』

『聖濟總錄』은 宋·徽宗이 政和연간(1111~1117년)에 당시 名醫들로 하여금 전국에서 수집된 민간경험방과 御府에 소장된 비방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匯編하도록 命하여 편찬되었다. 全書는 모두 200권으로 2만여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運氣」,「敍例」,「補遺」,「治法」등 총론을 두고 다음에「諸風」,「諸痹」…… 등 66門으로 나누어 병증을 분류하였다.

그 중 167권~182권이「小兒門」에 해당되고 隋唐시대 이후 소아과와 관련된 方論을 모아 다시 편성하였다. 각 條文마다 病因, 病機, 證候 및 治則 등을 논한 다음 方藥, 炮制, 복용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그 학술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범한 문헌 인용

『聖濟總錄·小兒門』의 특징은 풍부한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론을 살펴보면『황제내경』,『상한론』,『금궤요략』,『주후비급방』,『외대비요』,『태평성혜방』등 당시에 유전된 거의 모든 주요 의서를 인용하였고, 신생아의 질병에서 小兒內科, 小兒外科, 小兒皮膚科, 小兒五官科 등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 걸쳐 무려 110여종의 소아과 질병 및 1600여 수에 이르는 소아과 방제가 수록되어 宋代 大型方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소아과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 小兒 三因說을 주장

「小兒總論」에서 "解顱重顎連斷撮口重舌癲病口噤驅啼之類, 得諸胎中. 驚風客件中惡魅病之類, 得諸感襲. 乳哺不節, 則有癖結哺露丁奚傷飽之患"[95]이라 하여 '得諸胎中, 得諸感襲, 乳哺不節'이 소아병 발생의 3대 원인으로 명확히 지적하였다.

胎中에서 얻은 것은 선천성 질병으로 胎教가 잘못되어 야기된 것이고, 感襲으로 얻은 것은 冷暖의 부조로 인해 風寒暑濕 등의 外邪에 침범당한 것이고, 乳哺不節은 소아의 饑飽 부조로 질병이 발생된 것이다. 이는 소아병의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內因·外因·不內外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脾胃를 중시

「小兒門」에서는 "論曰脾胃者, 倉廩之官, 水穀入胃, 脾主磨而消之"[96]이라 하여 '脾主磨'가 소아 '脾臟'의 주요 생리기능으로 보았다. '磨'는 즉 '消磨'하여 '化生'시키는 의미로 신생아는 '五臟六腑, 成而未全, 全而未壯'하며 脾의 주요 기능은 精微한 것을 흡수하여 臟腑百骸를 長養한다. 따라서 水穀의 정미함을 충족시키는 여부에 따라 소아의 생장발육 상태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水穀이 胃에 들어가 정미함으로 化하면 脾의 消磨하는 기능에 힘입어 化生된다. 이러한 脾氣가 健運하면 萬病이 생기지 않거나 비록 병이 들더라도 예후가 양호하고, 健運하지 못하면 水穀이 精微한 것으로 化하지 못함으로써 '驚, 風, 疳, 瘦' 등을 비롯한 제반 소아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結 論

宋代는 소아과의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1076년에 '太醫局'이 설립되어 지금의 小兒科에 해당하는 '小方脈'이 太醫局 산하 九科 중의 하나가 됨으로써 소아과의 교육기구 및 교육체계가 정비되었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시대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小兒科 특유의 醫論과 醫方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 및 慈善政策이 중시되어 1249년 '慈幼局'이 설립되어 遺棄된 幼兒나 嬰兒를 거두어 보살펴 줌으로써 단순한 자선정책의 차원만이 아니라 소아과의 실제적인 임상발전을 촉진시켰다.

95) 太醫院 編. 曹孝忠 等 纂輯. 聖濟總錄 卷167·小兒門.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78. p.1315.

96) 太醫院 編. 曹孝忠 等 纂輯. 聖濟總錄 卷167·小兒門.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78. p.1315.

www.kci.go.kr

太醫局의 교육과정은『素問』,『難經』,『傷寒論』,『脈經』,『諸病源候論』등 역대 중요한 經典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임상의 결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소아과만의 특징을 지닌 辨證論治, 방제학 등이 발달하여 소아과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錢乙의『小兒藥證直訣』의 편찬으로 小兒科學의 辨證論治體系가 확립되었고, 錢乙, 陳文中, 董汲 등 小兒醫家의 임상 및 이론의 정립으로 小兒科學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아울러 兩宋시기 소아과와 관련된 의서만 근 70여종에 달하였다.『聖濟總錄』등에서는 무려 110여 종에 달하는 대량의 소아병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 소아과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졌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宋代 소아과의 이론적인 발전을 살펴보면 宋代 대표적인 小兒醫家인 錢乙은 생리적인 면에서 소아는 五臟六腑가 형성되었지만 성인처럼 완전하지 않고 柔弱한 특징이 있으므로 소아의 '寒熱虛實, 妄攻峻補, 損陽竭津' 등을 충분이 헤아려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變蒸'이 소아 생장발육의 정상적인 생리현상 중의 하나라고 여겼고, 병리적인 면에서도 소아는 '風, 寒, 暑, 濕, 燥, 火'의 六淫 뿐만 아니라 '驚, 風, 困, 喘, 虛'가 소아 五臟의 병리적인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虛, 實'에 따른 五臟病理에 대해 밝혔으며 그 중에서도 脾를 가장 중시하였다. 錢乙의『小兒藥證直訣』에 이와 같은 학술사상이 잘 나타나있다. 특히「五臟所主」,「五臟病」등의 편은 소아의 五臟辨證에 관한 것으로 五臟辨證의 강령이라 할 수 있다.

五臟辨證의 강령과 脾胃에 중점을 둔 錢氏의 학술사상은 이후 의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錢氏와 같은 시대의 董汲과 閻孝忠은 錢氏의 학술적인 추종자였다. 이를 계승한 劉昉의『幼幼新書』와『小兒衛生總微論方』에는『直訣』의 醫案, 醫論, 方劑가 수록되어 있다. 錢氏의 五臟虛實에 따른 證治는 張元素의 臟腑病機辨證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脾胃를 중시한 사상은 李東垣에게 영향을 주었다.

明代 薛己의『保嬰撮要』에서는 錢氏의 五臟辨證 학설을 밝혀『直訣』에 註釋을 달고 경험적인 醫案을 증보하여 錢氏의 학설을 천발하였다. 萬全도 五臟辨證說을 계승하였고, 魯們嗣는『嬰童百問』에서 錢氏의 학설을 모아서 問答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五臟分證理論을 포함한 錢乙의 학술사상이 宋代뿐만 아니라 이후 明·淸代에 이르기까지 小兒科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를 기초로 소아질병의 辨證에서 用藥까지, 즉 소아과의 기초이론에서 임상방면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小兒科 영역을 초월하여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소아병의 병인에 대해서 宋代의 의가들은 內因을 중시하였다. 錢乙은 소아 痲疹의 병인으로 胎毒說을 주장하였고, 脾胃虛弱이 소아 疳證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楊士瀛은 '熱'과 '痰'이 소아병의 병인 및 병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宋代 소아 진단학은 望診을 매우 중시하여 錢乙은 '面上證, 目內證 및 소아 吐瀉物' 등을 통해서 소아병 진단법을 논하였고,『保幼大全』,『小兒病源方論』등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보충, 발전시켰으며, 劉昉은『幼幼新書』에서 '小兒指紋診法'을 완성하여 임상에 넓게 응용되었고 또한 이를 기초로『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魚際부위 등 脈絡의 색택을 파악해서 질병을 판단하는 望診法을 발전시켰다.

小兒科의 방제 방면도 급격한 발전이 있어『太平聖惠方』에는 2689首에 달하는 소아과 방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湯劑뿐만 아니라 '丸, 散, 膏, 丹' 등 다양한 劑形을 운용하여 소아병을 치료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小兒衛生總微論方』등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소아에 대한 약물제형이 치료의 특징상 간편하고 복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www.kci.go.kr

1. 朴炫局, 金基郁, 金正浩. 金元代의 小兒科學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pp.13-26.
2. 吳晙煥, 金基郁, 朴炫局. 錢乙의 醫學思想에 關한 硏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2). pp.109-152.

<단행본>
1. 楊士瀛 著. 仁齊小兒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56, 422.
2. 陳文中 著. 小兒病源方論.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55, 258.
3. 宋·太平惠民和劑局 編.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40.
4. 陳延之 著. 小品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150.
5. 甄志亞 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 pp.186-187.
6.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7, 26, 107, 108, 138. pp.1-2, 2-3.
7. 撰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 13, 45, 46, 50, 55, 66, 71, 73, 86, 349, 478, 506. pp.533-534.
8. 吳少禎, 曾令眞 編著. 中國兒科醫學史.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85, 105, 106.
9. 劉昉 撰.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4, 25, 54, 58, 63, 334, 335. pp.31-36.
10. 聞人規 撰. 聞人氏痘疹論『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85, 191, 238. pp.193-194.
11. 丁奎萬 編.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5. p.34.
12. 龐安時 撰. 傷寒總病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90.
1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1, 188.
14.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4. p.140.
15. 太醫院 編. 曹孝忠 等 纂輯. 聖濟總錄.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78. p.1315.
16. 三木榮 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45.

<기타>
1. 王懷隱 編. 太平聖惠方.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2. 陳文中 著. 小兒痘診方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www.kci.go.kr